

사회복지학과 우수과제물

교과목명 : 사회복지역사(구:사회복지발달사)

학 번 :

성 명 :

연 락 처 :

o 과제유형 : E 형

o 과 제 명 : 사회복지역사에서 인상 깊은 장면 소개. 동화 만들기

목 차

| | |
|--------------------------------|---|
| 1. 인클로저 운동 ----- | 2 |
| 2.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인클로저 ----- | 5 |
| 3. 불평등에 대한 우화 : 동물마을 놀이터 ----- | 5 |
| 4. 참고문헌 ----- | 6 |

I. 인클로저 운동

인클로저(enclosure)란 본래 ‘울타리 치기’ 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말로,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영국에서 지주계급 등이 토지를 사유지화 해 나갔던 현상을 의미한다. 지배계급은 공유지와 미개간지, 황무지, 개방경지, 교회 토지 등을 사적, 혹은 공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사유지로 전환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땅을 경작하며 살아오던 이들 중 많은 수가 도시의 빈민층 혹은 부랑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유범상, 2019). 토지 소유권 확립을 위해 시작된 인클로저 운동은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산업혁명과 농업생산량 증가에 이바지 하게 되었다. 이는 첫째,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 대규모의 인구가 도시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층으로 변화하고, 둘째,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수요 증가에 맞춰 더 적은 일손으로 더 넓은 토지에서 더 많은 수확하고자 하는 시도에 의한 것이다. 인클로저 운동을 기점으로 영국은 ‘해가지지 않는 나라’ 라는 명칭에 걸맞은 변화를 이루며 강대국으로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다수는 과거보다 더욱 어려운 삶을 영위해야 했으며, 사회적 불평등은 계속 되었다.

다음에서는 인클로저 운동의 발생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불평등에 대한 짧은 우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인클로저 운동의 발생 배경과 흐름

유럽에서는 중세 시대까지 토지의 개인 소유 관념이 희박하여 농지 대부분이 공유지였으며,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땅에서 관습적으로 경작 및 목축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무엇이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증폭시켰을까?

그 배경에 대해 몇 가지 시대적 상황과 연결 지어 추측해 볼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은 14세기 후반 유럽을 휩쓴 흑사병(Black Death)의 영향이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유행성 질환이라 할 수 있었던 흑사병은 쥐, 벼룩 등의 설치류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1346년~1353년 사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7,500만~2억에 이르는 사망자를 냈다. 영국에서는 약 1,000여개의 마을이 사라지거나 엄청난 인구 감소가 이루어져 1,400년 영구 인구는 1,300명 인구의 절반가량에 불과하였다(브리टे니터 백과사전).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 감소는 식량 수요 감소에 따른 곡식 가격 하락은 물론 일손 부족 현상을 야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은 노동력으로 값비싼 양모를 생산할 수 있는 목장 운영은 이익 창출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모직물 가공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양모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경작에 비해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영주와 지주 등은 최대한 넓은 토지를 확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마을이 통제로 사라지거나 엄청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들이 토지 소유를 확대하고 울타리를 치는 것에 저항할 세력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주와 지주 계급 주도의 소유권 확보인 1차 인클로저와 달리 관 주도로 이루어진 2차 인클로저는 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1차 인클로저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은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토지 소유화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반 주민들도 농지를 할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명시되기도 하였으나 울타리를 치는 인클로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토지는 합법적으로 대지주에 집중되었다. 흑사병으로 줄어들었던 인구는 17세기에 이르러 회복되었으나, 이미 농업 인구 비율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기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와 더불어 양모의 가격 상승이 멈추어 목장 수익성이 한계에 이르자, 지주들은 감자 등 대규모 경작에 적합한 작물과 농법 개발에 관심을 가졌다(송병건, 2010).

결국 수 세기에 걸쳐 진행된 인클로저는 농촌 인구를 도시로 편입시켰으며, 이들의 노동력은 19세기 초 영국의 산업혁명의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빛나는 영국을 만든 대다수의 ‘산업 역군’들이 극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감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 문학작품을 통해 드러난 인클로저 운동과 불평등한 사회

1)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 1516)

인클로저 운동에 대해 가장 잘 묘사된 소설 중 하나인 ‘유토피아(1516)’에서 토머스 모어는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하여 양을 키우는 목장이 증가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밖에 없었던 농노들이 거지와 부랑자, 도적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도시의 빈곤한 노동자로 전락한 다수의 사람들과 일부 부유한 사람의 격차가 급격한 커지는 점에 대한 우려는 매우 의미 있게 여겨진다.

유토피아의 다음 대목에서는 불평등한 당시 상황을 언급한다.

세상에는 수필처럼 그저 남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다수의 귀족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수입 증대를 위해 소작인들을 쥐어짜서 먹고사는 자들입니다. 착취는 현실 경제에 대한 그들의 유일한 지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사치 생활은 낭비로 금방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2) 올리버트위스트 (찰스 디킨즈, 1837)

유토피아가 체제에 대한 넓은 관점으로 불평등을 다루었다면, 올리버트위스트는 어린 소년의 삶을 통해 그 당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이들의 애환을 다룬다. 구빈원에서 생활하던 소년 올리버는 형편없는 식사에 굶주리다 죽을 더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기절할 정도로 아이를 때리고 감금한다. 이후 3파운드 정도에 팔려가다시피 장의사 도제가 된 올리버는 최선을 다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려 런던으로 떠나게 되고, 이후 런던 뒷골목에서 더한 시련을 마주하게 된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린이와 이에 대한 가혹한 시각은 다음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뭘야!” 구빈원장은 희미한 목소리로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있잖아요 원장선생님,” 올리버가 답했다. “조금만 더 주세요.”

구빈원장은 올리버의 머리를 거냥해 국자로 한 대 내리치고 올리버를 두 팔로 꼭 붙잡은 채 소리를 썩 질러 말단 교구관을 불렀다.

이사들은 자기들끼리 비밀회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매우 흥분한 범블씨가 방으로 뛰어 들어와 높은 의자에 앉은 양반에게 말했다.

“림킨스 이사님, 죄송합니다만, 저, 올리버가 더 달라고 했답니다!” 모두 다 깜짝 놀랐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 공포가 서렸다.

“더 달라고 했다고!” 림킨스씨가 말했다. “진정하게, 범블. 그리고 내 말에 분명히 대답해. 지금 그 애가 규정대로 준 저녁을 다 먹고 더 달라고 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랬다니까요, 나리.” 범블씨가 답했다.

“그놈은 장차 교수형 당할 거야.” 흰 조끼 차림의 신사가 말했다.

“단언컨대 그놈은 장차 교수형 당할 거라고.”

아무도 이 예언 잘하는 신사의 의견을 반박하지 않았다.

3)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 1881)

실존인물인 에드워드 6세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왕자와 거지’ 에도는 16세기 영국의 암담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태어나지 않아도 좋았을’ 가난한 집의 사내아이와, ‘모든 국민이 기다리고 축복한’ 궁궐 속 왕자가 우연히 만나 서로 옷을 바꿔 입으며 사건은 시작된다. 단순히 옷을 바꿔입은 것 뿐인데도 두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그 당시 지배 계급과 일반인들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며, 소설에 묘사된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는 인클로저로 인해 쫓겨난 농부들의 비극적 삶을 엿볼 수 있다.

“몇 명 있지..... 암, 있고말고. 특히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그랬지..... 소규모 농부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지 뭐야. 그 땅을 빼앗아 양치는 목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지. 구걸하러 다니다가 걸려서 옷통을 드러낸 채 마차 꿈무늬에 묶여 피가 줄줄 흐를 때까지 채찍질을 당했지. 그리고는 족쇄에 채여 돌팔매질을 당했다. 또다시 구걸을 하다 걸려 또 채찍질을 당하고, 한쪽 귀까지 잘리는 신세가 되었어. 그들을 세 번째로 구걸을 했지..... 불쌍하기도 하지, 오죽했으면 세 번씩이나 구걸하러 나섰겠냐고! 이번에는 시벨경게 달군 쇠로 뺨에 낙인을 찍고 노예로 팔렸지 뭐야. 그래서 도망을 치다 끝내 붙잡혀 사형을 당했어. 간단히 그리고 짧게 얘기한 거야. 이보단 덜하지만, 우리 중에도 이런 고생을 겪은 사람이 많아. 요컬, 번스, 호지, 앞으로 나와 봐..... 너희들 훈장 좀 보여 줘라!”

지목을 당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몸에 걸치고 있던 녀마를 일부 벗고는 등판을 드러내 보였는데, 보기 흉한 채찍 자국이 십자로 패어 있었다. 한 사람이 머리털을 들추어 외쪽 귀가 잘려 나간 자국을 보여 주었다. 또 한 사람은 어깨에 찍힌 ‘브이(V)자’ 낙인과 함께 귀가 잘려 나간 자국을 보여 주었다.

II.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인클로저 : 나의 견해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 인클로저 운동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상당히 유사하여 깊은 인상을 준다. 14세기에 시작된 인클로저는 700년 전의 유물로 간단히 인식될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21세기 현재에도 인클로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된다. 행복한 삶을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2016)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불평등이기 때문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과 세 모녀 자살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공고하게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 커졌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은 17년에 비해 10% 증가한 932만 4,000원이었으나, 하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17.7% 감소한 123만 8,000원이었다. 42.4%에 이르는 노인 빈곤율 또한 OECD 평균인 13.5%의 3배에 이르러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수많은 제도가 쏟아져 나왔으나, 아파트 청약에 성공한 시민이 대출금 규제로 인해 중도금 등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계약을 포기하며 수십 채를 보유한 이들은 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그 세를 불리는 것도 현실이다. 초등학교 교실에서조차 동급생을 ‘휴거(휴먼시아 거지: 임대아파트 명칭에 가난한 이미지를 결합하여 만든 신조어)’라 부르며 따돌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니, 상대적 빈곤감에 괴로워하는 우리사회는 14세기 영국보다 더 처절한 상황일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은 중세의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눈에 보이던 울타리가 무형의 법 제도로 바뀌어 ‘합법’이라는 모습이 되었을 뿐, 재산의 사유화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소외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차원의 울타리 치기(new urban enclosures)이며, 탈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부의 축적 및 영역화라 할 수 있다(김용창,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가 사회를 망가뜨릴까 두려워하며, 대기업과 권력계층이 부재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경계한다.

불평등에 대해 눈을 뜨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는 것일까? 사회적 인식과 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렇기에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기’는 더욱 중요하다.

III. 불평등에 대한 우화 : 동물마을 놀이터

인클로저에서 드러난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아래에 짧은 우화를 창작하여 제시하였다. 다음 이야기에서 꿈은 부를 독점하는 권력자 혹은 지배계급을 의미한다. 권력자의 출현에 대해 대다수는 어리둥절하지만 곧 불평등한 상황을 극복하기보다 그에 순응하여 살아간다. 심지어 권력자가 떠나 혼란스러워질 것을 두려워하는 동안 또 다른 권력자들이 나타나는 현실을 풍자하였다.

동물 마을 놀이터는 언제나 많은 친구들로 시끌벅적해요. 그 중에서도 시소 타기는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지요. 동물들은 사이좋게 시소를 타고 위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커다랗고 힘이 센 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곰은 시소에 털썩 앉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이제부터 이쪽은 내가 탈거야. 너희는 반대쪽을 쓰도록 해.” 아기 동물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 그래야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힘이 센 곰과 싸우고 싶지 않았던 아기 동물들은 시소 반대편에 올랐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커다란 곰과 시소를 타려면 다섯 마리가 반대편에 앉아야 했어요. 아기 동물들은 시소에 탈 자리가 좁아서 좀 불편하긴 했지만 참을 만은 했어요. 한편으로는 더 재미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곰이 놀이터의 시소 한 쪽을 차지한지 한 달이 지나자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은 곰과 시소 타는 방법에 익숙해진 나머지, 예전에 자유롭게 놀던 방법은 점점 잊어버렸죠. 시간이 흐를수록 곰은 점점 더 거대해졌어요. 이제 아기 동물 열 마리, 아니 스무 마리가 올라도 균형이 잘 맞지 않아요. 곰이 심술을 부려 힘을 주기라도 하면, 아기 동물들은 높이 올라간 채로 매달려야만 했어요. 간혹 떨어져 다치는 동물도 있었고요.

곰은 균형이 맞지 않는 시소에 앉아 사납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녀석들! 다른 애들이라도 더 데려와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것 아니냐! 도대체 너희는 뭘 하는 거니? 이러다 내가 재미없어서 시소에서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기 동물들은 깜짝 놀라 웅성거렸어요. “곰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그럼 정말 큰 일이 생길거야. 우리는 시소를 다시 못 탈 수도 있어.” “맞아, 우리가 시소를 탈 수 있는 건 저렇게 커다란 곰이 무게를 맞춰주기 때문이잖아.” “우리 좀 더 열심히 매달려보자.”

이제 동물 마을 놀이터에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기 동물들은 커다랗고 심술궂은 곰의 무게를 견뎌내면서 시소를 최대한 정확한 높이로, 최대한 많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시소 타기의 재미는 잊혀진지 오래고,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이느라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기동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곰이 영영 놀이터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지시를 내려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곰이 사라지면 놀이터가 엉망진창이 될 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또 다른 곰들이 찾아왔습니다. 곰들은 각각 미끄럼틀과 그네를 자기만의 영역이라고 선포하였고, 시소에서 있었던 것과 비슷한 일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V. 참고문헌

- 김용창 (2015).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 **대한지리학회지**, 50(4), 431-449.
- 브리टे니커 백과사전[웹사이트]. (2019.04.24.). URL: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5h3552a
- 송병건 (2010). 농업혁명, 의회 인클로저와 농촌사회의 변화, 1750-1850. **영국연구**, 0(23), 91-124.

- 유범상 (2019). **사회복지발달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2016).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 Charles Dickens (2018). 올리버 트위스트 (이인규 역). 서울: 민음사. (원저 1837 출판)
- Mark Twain (2010). 왕자와 거지 (김옥동 역). 서울: 민음사. (원저 1881 출판)
- Thomas More (2007). 유토피아 (주경철 역). 서울: 을유문화사. (원저 1516 출판)